

## 자산 1조 '알짜 농협'

〈광주·남광주·서광주〉

### 광주 '빅3' 최대 관심

조합장 선거 D-35 경쟁 치열

농·수·축협·산림조합장을 뽑는 3월 11일 동시선거가 한 달 앞(9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 예정자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면서 광주·전남에서도 물밑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후보 등록 전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이미 일부 입지자들은 유권자인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접촉을 가지며 지지세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선관위, 농협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과는 달리 정치 색채가 짙고 입지자도 많은 광주의 경우 이번 동시선거가 본래의 취지대로 돈 선거 없는 공정한 선거를 장담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협과 축협을 포함해 17명의 조합장을 뽑는 광주에서는 현재 신중한 행보 속에 50여명이 출마에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균 보다 높은 4대 1 이상의 경쟁률이 예상된다. 또 동곡농협과 남광주농협 등은 현 조합장 외에 4~6명이 조심스럽게 출마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지역에서 격전지로 관심이 쏠리는 곳은 규모가 크고 경합이 치열한 이른바 지역농협 '빅3'로 불리는 광주농협과 남광주농협, 서광주농협이다. 자산규모가 모두 1조원대 이상인 알짜농협이다. 이들 농협의 조합장은 일반 공공기관의 운용자금 규모에 맞먹는 폭넓은 자금 운용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농업 업무에 대한 대표권과 업무집행권, 직원의 임명권 등을 함께 쥐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지역 최대 규모인 광주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초선인 한진섭 현 조합장과 김기호 전 조합장, 박노수·서기택 전 이사, 김순택(현 대의원) 등 4명이 물밑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광주농협은 3선인 현 이관수 조합장과 함께 이영중 전 상임이사, 최종섭

전 조합장, 정남석 전 이사 등 5명이 입후보 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다.

서광주농협의 경우 문병우 현 조합장을 비롯해 오강기 전 조합장과 정환진 전 지점장의 대결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송정농협도 나흔 조합장이 현직 조합장 중 유일하게 이번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해 입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 지역 최대선인 4선 조합장을 배출한 서창농협 역시 관심사이다. 16년째 서창농협을 이끌고 있는 배인수 현 조합장이 5선에 도전할 경우 불꽃 경쟁이 예상된다.

2선인 김옥태 현 조합장이 버티고 있는 동곡농협은 류상선 전 조합장을 비롯해 김순옥(주민자치위원장), 이홍준(농업경영인), 유병래(전 공무원)씨 등 7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쟁쟁한 출마가 점쳐진다.

이에 따라 선관위와 농협 등의 불·타락 선거 감시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광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3일 현재 사전 선거운동과 금품제공 등으로 고발조치된 사례가 2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건 등 5건에 이른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동시선거의 돈선거 척결을 위해 비공개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후보자로부터 신고 제보 요원을 추천받아 후보자 상호 신고제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3월 11일 치러질 동시조합장 선거는 2월 20일 선거일이 공고되며, 2월 24일과 2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14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선거 운동은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다.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발송, 어깨띠, 옷, 소품, 명함 배부, 전화이용,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당권 '시野제로'... 호남서 막판 총력전

새정치 전대 권리당원 투표 시작  
박지원 "반칙 맞서 당당히 완주"  
문재인 "전준위가 를 바로잡아"  
이인영, 민생·통일로 이슈 차별화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ARS 투표가 3일 시작된 가운데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호남을 방문하는 등 막판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일 중앙당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경선 룰 변경에 강력 반발했던 박지원 후보가 경선 완주 의사를 밝히면서

'룰의 전쟁'은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태는 당권의 향배를 좌우할 중대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박지원 후보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투표 하루 전에 룰을 바꾸는 특정 계파의 폭거와 반칙에 맞서 당당하게 가겠다"고 밝히, 경선 완주의사를 나타냈다.

박 후보는 이날 전주, 군산, 익산 등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전북 중심 공략에 나서는 한편 여론조사 경선 룰 변경의 불공정성을 강조하는 등 이슈화에 나섰다.

박 후보는 4일에는 광주를 방문, 호남의 선택이 새정치연합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운장현 광주시 장과의 면담, 광주 기자간담회 등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 공략에 나섰다.

문 후보는 이번 경선 룰 변경 논란이 호남 민심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선 룰 변경 논란과 관련, "시행세척에 '지지후보 없음'에 대한 합산 규정이 없는데 선관위가 다르게 유권해석을 하려 했다"가 문제가 되려는 것을 전준위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이인영 후보는 이날 저녁 광주를 방문, 당 대표 경선이 비전보

다는 갈등만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후보는 민생과 통일 이슈 등 차별화된 행보를 통해 막판 호남 민심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선 룰 전쟁에 대한 호남 민심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호남 민심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경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내 관계자는 "이번 경선 룰 논란은 당의 민심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투표 직전 발생한 이번 사태는 경선 막판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U대회 성공 기원 중이 비행기 날리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7월3~14일)를 150일 앞둔 3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성공기원을 염원하며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전남·전북·충북지사 "KTX 서대전역 경유 안된다"

국토부장관 면담 강력 항의... 서승환 장관 "수요 고려" 버티기

운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설문식 충북 정부부지사는 3일 오후 서울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호남고속철도(KTX)는 애초 계획대로 운행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서 장관이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서대전역 경유를 염두에 둔 발

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운장현 시장은 이날 서 장관에게 "4개 시·도 모두 유·불리가 있겠지만,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견 없이 호남고속철은 원래 취지대로 운행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항상 강조해온 원칙과 신뢰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지사는 "일이 이상하게 돼 '호남 푸대접론'이 불붙었는데 이는 호남지역민도 원치않고 부담스러운 결과다. 정부도 이것만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차선택까지 제시하며 서 장관을 압박했다. 송 지사는 "지금이라도 호남선 간선에 대한 입장과 운행계획을 밝혀야 하며 익산에서 계통을 거쳐 돌아가는 선을 고속철화 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 장관은 호남과 대전권의 입장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서 장관은 "건설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며

"의견수렴을 지속하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된다"며 "결정 전에 상의를 드리겠다. 합리적인 안이라고 판단되면 시·도지사님도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며 서대전 경유를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박진기자 lucky@kwangju.co.kr

'IS 사태'에 곤혹

광주·전남 무슬림들 5천명 ▶6면

무안공항 설연휴 상품 매진 ▶14면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예년상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5년 2월호  
1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이젠, 걸쳐로드 금남로”  
역사에 문화를 더하자  
전당으로 흐르는 '문화순환로' 만들자  
전일빌딩을 금남로의 아이콘으로

설 기획  
전통의 진화를 만나다  
맛있는 상상력 등불, 떡의 무한변신  
갈수록 새로워지는 한복의 매력

예년이 만난 사람  
다큐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감독  
진모영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배운 사랑  
'용사'에서 '삼시세끼'까지 뜨거운 인기  
순천 출신 배우 손호준의 스타 탄생기

예향 초대석  
울림의 글로 마음 흔드는  
불문학자 황현산의  
문학과 삶 이야기  
남도의 장인들②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의 악기를 만든다”  
소리 변하지 않는 가야금, ‘백년공’의 명인,  
악기장 이춘봉

도시재생, 문화에게 물어봐-  
국내외현장을 가다③  
세계인이 사랑하는  
파리 라 빌레트 공원  
노동촌의 세계 문화도시 기행②  
핀란드 헬싱키에서  
복유립 디자인의  
정수를 만나다  
문화 화제  
2015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3인의  
소감과 습작이야기  
화가의 작업실  
깨진 거울 조각으로 세상을  
되비추어내는 작가 이정기

사람이 브랜드다  
화가 박수근과 강원도 앙구  
가장 한국적인 화가의 예술은  
마주할 수 있는 '박수근미술관'  
정운수의 스포츠 인사이드②  
축인 인권  
자기기 위해 뛰었던  
신념의 복서, 알리!  
아시아 스토리 로드-말레이시아②  
신화와 자연 뛰어 천을 찢고 웃을 짓는  
말레이시아 소수민족, 무릇족